

근대 전환기 고전소설의 대응 양상과 그 의미

-박건희 편집 및 개작 소설을 중심으로1)

이주영2)

1. 서론
2. 박건희 출판 도서 개관
3. 소설 작품의 성향
 - 1) 편집상의 특징
 - 2) 단형 서사에 대한 관심
 - 3) 중국 연원 소설의 집중 발행
4. 문화사적 의의와 한계
 - 1) 인쇄 매체와 구술 문화의 접목
 - 2) 독자의 재발견과 방향 전환
5. 결론

1. 서론

1910년대 고전소설은 신작 구소설이 발굴 소개되고 그 문학사적 의미 탐색이 신중하게 병행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³⁾ 아울러 자료에 대한 정리 과정을 거쳐 이들 작품의 가치가 재인식되고,⁴⁾ 최근에는 문화사적인 시각에서의 조망이 연구자들에 의하여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⁵⁾ 그 결과 구

1)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03-A00102).

2)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 이은숙, 「활자본 신작구소설에서의 애정소설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1987 ; 장효현, 「근대전환기 고전소설 수용의 역사성」, 『근대전환기의 언어와 문학』,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1 ; 김교봉·설성경, 『근대전환기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1 ; 이은숙, 「항일 우의 신작구소설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장효현, 「애국계몽기 고전장편 소설의 역사현실 대응」,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IV』, 중앙문화사, 1995.

4) 권순궁, 「1910년대 활자본 고소설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1991 ; 줄고, 「구활자본 고전소설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1997.

5) 이태화, 「신문관 간행 판소리계 소설의 개작 양상」, 고려대 대학원, 2003 ; 문한별, 「이광수

활자본 고전소설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선 듯하다.

그러나 이 시기가 우리의 문학사에서 중대한 전환기라는 사실과 장르의 지속보다는 변화에 무게를 두는 관행으로 인하여 1910년대 고전소설은 여전히 연구사의 주변에 머무르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시기 대부분의 고전소설은 그저 개별 작품의 이본 가운데 하나로서, 작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전대 소설이 지닌 변화의 폭을 가늠하는 데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의 연유는 구활자본 자체에 일정한 부분 내재되어 있기는 하다.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서는 1910년대 사회상과 구활자 이본이 갖는 연결 고리를 찾기 힘든데다,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변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래서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구활자본의 유행을 현실 외면과 과거 추수로만 단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것들이 전 시대 유산의 단순한 재현이었다고 하여도 최소한의 역할과 의미는 담겨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품이 시대와 공존했음을 부인하지 않는 한 구활자본 고전소설의 출현과 유행은 시대와 교섭한 결과이다. 그런데 시대와 작품의 거리란 보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그 거리가 멀어지는 한 작품은 더 이상 생명력을 지니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작품에서 오락적 요소를 찾는 것과 그것을 오락물이라 단정하는 것은 분명 다르지만 문학사는 그 인식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지 않는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10년대 대표적인 고전소설 작가라 칭할 수 있는 박건희의 활동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대로, 그가 남긴 작품들은 이전 시기에 유행한 소설들의 단순 반복이 대부분이다. 더러는 제목이 생소한 작품들도 있으나 그 또한 대개는 전 시대의 작

<무정>과 활자본 고소설 <채봉감별곡>의 공시적 비교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5, 2004 ; 최호석, 「지송옥과 신구서림」, 한국고소설학회, 『고소설연구』 19, 2005 ; 유춘동, 「구활자본 고소설 선택본 소개」,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연구』 15, 2006 ; 류준경, 「독서층의 새로운 지평, 방각본과 신활자본」, 한국한문고전학회, 『한문고전연구』 13, 2006 ; 임태웅, 「활자본 고전소설의 근대적 간행 양상:신구서림의 간행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2007 ; 서유석, 「20세기 초반 활자본 출판전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 관소리학회, 『관소리연구』, 2007 등을 참조할 것.

품인 경우가 많다. 방각본이나 필사본 소설의 외양만을 변화시켜 놓은 듯한 이들 작품에서 작가적 개성을 들추어내기란 쉽지 않거나 의미가 덜한 일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가 남긴 문학적 유산들이란 고전 소설사의 시간적 연장선에서 끝단에 위치하며 상업성에 침윤된 사소한 작품으로 치부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박건희의 작업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의 소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이 우선 일회적이라 하기 어려우며, 그가 남긴 출판물의 특성은 구활자본 전체의 성향으로 지목되기도 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은 당시로서는 매우 독보적인 것이어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연구는 개별 작품론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된 것들과 구활자본 고전소설의 자료 정리 내용 가운데 출판인의 한 사람으로 활동상이 간략히 소개된 것이 전부이다.⁶⁾

따라서, 그가 소설책을 통하여 전대의 유산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고, 어떤 변화를 모색했는지, 혹은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 논의 결과들은 실명이 밝혀진 최후의 고전소설 작가라 할 수 있는 박건희 개인의 특성과 변화를 확인함은 물론 구활자본 전체의 문화사적 위상 변화를 해명하는 데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현전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박건희가 남긴 작품을 조사하고 그 목록을 제시하였다. 소설 이외의 출판물도 그의 성향과 관계되므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별도로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그가 출판한 소설들이 지니는 특성을 정리하고 그의 지향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의 고전소설 개작과 편집 행위가 갖는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6) 이은숙, 『신작구소설연구』(국학자료원, 2000, p.438)과 장효현, 「근대전환기 고전소설 수용의 역사성」, 그리고 전개한 줄고 등에서 그의 활동에 대한 개략적인 언급이 있었다.

2. 박건희 출판 도서 개관

박건희가 사주로 있던 조선서관에서 발행되었거나 그의 이름이 기재된 서적은 현재까지 모두 69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서적의 초판은 1912년부터⁷⁾ 1920년대 초반 사이에 대부분 발행되었는데, 그 중 비소설류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19종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연번	서명	발행 연도	발행소	발행자	역할
1	가언선행 격몽요결	1912	조선서관		
2	현도구해용학집주	1912	조선서관	박건희	편집검발행자
3	선문부음증보명심보감	1913	조선서관	박건희	集編/편집검발행자
4	중용집주	1913	조선서관	박건희	편집검발행자
5	공부자연행록	1913(?)	조선서관	박건희	편집자/輯
6	증보주해명심보감	1914	조선서관	박건희	서문
7	현도주해여자보감	1914	회동서관 (총발행소)	박건희	저작검발행자
8	만고기담처세가	1914	조선서관		
9	특선내외금강산실기	1915	유일서관	박건희	편집검발행자
10	특선부음현토고문진보	1916	조선서관	박건희	
11	영락백문언문상법	1916	오성서관	박건희	편
12	지인명강언문상법	1916	신구서림	박건희	序/편집자/편집검발행자
13	보제창생구황벽곡비방	1918	조선서관	박건희	편집자/저작검발행자
14	만세법언명심속람	1918	조선서관, 유일서관, 한성서관	박건희	편집/편집검발행자
15	개량증보사주길흉자해법	1919	박문서관	박건희	편
16	증수박씨소원록	1921	종로1정목15번지	박건희	서/편집검발행자
17	언문물형관상법	1929	영창서관한흥서림	박건희	저/서/저작자
18	오십이종비밀언문불경	1935	덕흥서림	박건희	
19	십이삭운해석십팔구도정 비결	1935	덕흥서림	박건희	편

<표 2> 박건희/조선서관 관련 비소설류 서적 목록
위의 목록을 보면, 박건희가 발행한 일반 서적은 크게 두 부류가 주종을

이룬다. <공부자연행록>, <명심보감>, <여자보감>, <중용집주>,⁸⁾ <격몽요결> 등 유교 관련 교육 도서가 한 부류로 19종 가운데 8종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용 서적들은 구매층이 비교적 확실하기에 방각본이나 동시대 출판 목록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박건회 역시 유교 관련서 출판으로 그러한 흐름에 합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부류는 <언문상법>, <관상법>, <사주길흉자해법>, <토정비결> 등 역술 관련 서적들인데 5종이 출판되었다. 이들 역술서는 교육용 도서와 성격이 다르지만, 구매층을 확보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점과 전래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분야의 서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도 찾을 수 있다. 발행 시기는 다르지만 이들 두 부류의 서적에 관심을 갖고 편술자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박건회가 출판인으로서 지닌 문화적 성향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해 준다. 이들 서적 외에도 문학서로 <처세가>, <금강산실기>, <고문진보>가 출판되었고, 종친회 관련 서적 등 성격을 명확히 지목하기 어려운 책이 3종 출판되었다.

이들 비소설류를 제외한 나머지 50종이 소설 혹은 이야기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⁹⁾ 전체 출판물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를 상회하는데,¹⁰⁾ 박건회의 출판 활동에서 소설류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7)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목록에는 1908년 발행된 <기담과 재담>의 서지 사항에 “박건회 등 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본을 확인할 수 없다.

8) 표지에 “高等學校 學徒用”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9) 박건회가 작품 말미에 덧붙인 광고에서 확인되는 작품들은 이보다 많다. 예를 들면, <진주적삼>은 광고에서만 보이고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미국 컬럼비아 대학 동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한국서지학회 편, 『해외 전적문화재 조사목록』, 1994 참조). 현재는 서울대 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장국진전>의 이본으로 알려진 <모란정기>는 박건회의 광고문에서는 거둬 나오는데, 작품에 그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구두장군>은 실본을 확인할 수 없으나 <김원전>에 등장하는 괴물을 제목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례를 참조하면 박건회가 관여한 작품은 50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0) 문학 서적은 일반 서적에 비해 보존과 조사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그래서 실제 발행 상황은 위에 적시한 값과 달리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판을 거듭한 회수나 실제 판매 부수 등 확인 불가능한 다른 변수들도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는 제한적이거나 실상을 확인하는 자료로 의미를 지닌다.

근래 조선인의 서적계를 고찰하건대 그 성질이 고상하다 말할까 低下하다 위할까. (….) 단 종일 賣品이 연소설 약간 중에 불과하니 조선인의 程度는 가히 推知할지로다.¹¹⁾

위의 인용문에서 『매일신보』의 기자는 폄하하고 있지만 고전소설의 유행은 주목할 만한 당시의 사회적 현상이었다. 따라서 박건회의 소설 발행은 우선 당시의 출판계 분위기와 연관된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과 함께 박건회 개인의 성향도 소설 작품의 비중을 높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예상할 수 있다. 아래의 <표2>는 그가 사주로 있던 조선서관에서 발행되었거나 그의 실명이 기재된 구활자본 소설들을 발행 연도 순으로 정리한 결과이다.¹²⁾

일련 번호	표제	발행 연도	발행소	발행자	역할	비고
1	가정소설천리경	1912	조선서관	박건회	저자/저작경발행자	
2	기담소설박천남전	1912	조선서관	박건회	편집경발행자	일본설화
3	조선야담청구기담	1912	조선서관			
4	강태공실기	1913	조선서관	박건회	저. 편집경발행자	(방)
5	고대소설별상설기	1913	조선서관	박건회	저/편집경발행자	(방)
6	고려강시중전	1913	조선서관	박건회	편집자/저작경발행자	
7	대월서상기	1913	조선서관	박건회	역술	
8	산수삼국지6책	1913	조선서관			(방)
9	연한문서유기	1913				(방)
10	연한문충의수호지	1913	조선서관	박건회	편집경발행	(방)
11	초한건곤장자방실기 (상하2책)	1913	조선서관	박건회	역술/편집경발행자	(방)
12	삼국풍진화용도실기	1914	조선서관	박건회	편집자	(방)
13	소군원	1914	조선서관	박건회		
14	창선강의록(상하1책)	1914	조선서관	박건회	역술/편집경발행자	
15	당태종전	1915				(방)

11) 「조선서적계」, 『매일신보』, 1914.2.24.

12) <천리경>, <박천남전> 등은 고전소설로 분류할 수 없는 작품이다. 그러나, 박건회의 성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목록에 포함하였다. 발행소와 발행자가 공란으로 처리된 작품은 초판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16	백포소장설인귀전 (상하2책)	1915	상: 조선서관 하: 동미서시	박건회	편자/저작경발행자	(방)
17	연한문하진양문록	1915	동미서시	박건회	저	
18	울지경덕실기	1915	조선서관			(방)
19	윤리소설진대방전	1915	신구서림	박건회	저작경발행자	(방)
20	일대명장현수문전	1915	조선서관	박건회	편집/편집경발행자	(방)
21	증수백학선	1915	신구서림	박건회	편	(방)
22	특별무쌍춘향전	1915	조선서관	박건회	저자/저작경발행자	(방)
23	특별속영낭자전	1915	신구서림	박건회	편집경발행자	(방)
24	팔장사전(상하2책)	1915	조선서관			남정팔난기 (방)
25	형산백옥	1915				(미상)
26	금방울전(금령전)	1916	조선서관	박건회	집/저작경발행자	(방)
27	금항정기	1916	동미서시	박건회	저작경발행자	(방)
28	노처녀 고독각씨	1916	광명서관	박건회	저작/편집경발행	삼설기
29	소약란적금도	1916	신구서림	박건회	저작경발행자	
30	용문장군전	1916				(방)
31	월봉산기(상하2책)	1916	조선서관	박건회	저작경발행자	(방)
32	육효자전	1916	조선서관	박건회	편술/편집경발행자	이해룡전 외 (방)
33	진시황실기	1916		박건회	편집	
34	홍계월전	1916	광동서관	박건회	편집경발행자	
35	황장군전	1916				(방)
36	고대소설청루지열녀	1917	신구서림(?)	박건회	저/저작경발행자	왕경룡전
37	삼국이대장전	1917	조선서관	박건회	편집경발행자	이태경전
38	신랑의보쌈	1917	광익서관	박건회	저작경발행자	정수경전
39	쌍두장군전	1917	조선서관	박건회	편집경발행	곽해룡전
40	여호걸 리학사전	1917	이문당	박건회	저작경발행자	
41	음양삼태성	1917				옥주호연 (방)
42	진주적삼	1917	공진서관	박건회	저작경발행자	
43	괴산정진사전	1918	동문서림	박건회	저작경발행자	정진사전
44	독행천리오관참장기	1918	대창서원보 급서관	박건회	편집경발행자	삼국지(방)

45	미훈진 수양재행락기	1918	신구서림	박건회	저작검발행자	수당연의
46	삼국풍진한수대전	1918	박문서관(?)	박건회	편집검발행자	삼국지(방)
47	속수호지일백단팔귀 화기1-3	1918	조선서관	박건회	편집자	
48	연한문금고기관	1918	신구서림	박건회	저작검발행자	
49	일대장관	1918	동미서시/회 동서관/광익 서관	박건회	저작검발행자	금송아지 전, 황새결 송, 녹처사 연회, 서대 주전
50	대담강유실기	1922		박건회	저작검발행자	삼국지

<표 3> 박건회/조선서관 관련 소설류 목록, (방) = 방각본.

이상의 작품들에서 박건회는 자신의 역할을 편집, 편술, 역술, 저작, 발행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해 놓았다. 개개의 용어 사용에 특별한 기준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다른 출판사에서 펴낸 책들에까지도 이름이 기재된 것은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순연한 그의 창작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작품은 현재로서는 지목하기 어렵다.¹³⁾ 다음 장에서 이들 소설류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소설 작품의 성향

1) 편집상의 특징

박건회는 자신의 소설책에 기왕의 소설들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을 남겨두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목의 변화이다. <창선감의록>, <홍계월전>, <당태종전>, <금방울전>, <금향정기>의 다섯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

13) <형산백옥> 같은 작품은 원작이 확인되지 않아 신작 구조설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후록을 보고자 하거던 장문총효록을 찾아보라. 장각로의 사위 부부의 선행과 자손이 기이한 사적이 많아 해비하니라”라는 내용이 작품 말미에 덧붙여 있고, 문체와 서서구조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박건회의 창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들은 대부분 제목에 관식이 붙거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표현들을 성격에 따라 나누어 보면 특별함을 강조하거나 작품의 내용을 짐작하게 하며, 표기 수단을 나타내기도 하고 제명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꾸미는 어사를 동원하기도 하였다.

제목이 새로운 서적 가운데는 <일대장관>처럼 여러 이야기를 한데 모으거나 <대담강유실기>처럼 원작을 일부 발췌해서 새로운 제목을 붙이는 일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¹⁴⁾ 그렇다고 제목에 작가의 개성이 노출된 것도 아니어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표현들이라는 점 외에는 공식 같은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인공의 이름을 제명에 내세운 경우에는 그 영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1917년 발행된 작품들에서 제목 변화의 폭이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17년 작품은 <청루지열녀>, <삼국이대장전>, <신랑의 보쌈>, <쌍두장군전>, <음양삼태성>, <진주적삼> 등이다. 이들 작품은 제목만으로는 원작을 추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표2>에 나타나 있듯이 대부분은 이전 시대의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쌍두장군전>은 <곽해룡전>의 적장을 제명으로 내세웠고, <신랑의 보쌈>은 송사소설 <정수경전>을 개작하며 사건 가운데 하나를 제목으로 삼았다. <음양삼태성>은 <옥주호연>의 인물 특성을 제목화한 사례이다. <진주적삼>은 현재로서는 원작의 확인이 어려우나 작품 속의 화소 하나를 표제로 삼았다.

이러한 제목의 변화는 우선 다른 출판사들과 차별화를 꾀하여 독자들의 시선을 잡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작품에서는 신소설을 연상하게 하는 제목을 붙이기도 해서 새로운 독자층을 흡인하려는 의도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듬해인 1918년 새로운 작품의 발행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사실을 보면 그같은 시도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도 그럴 것이 독자들에게는 제목이 작품을 구분하는 지표가 될 뿐 아니라 사전 정보를 취득하는 중요 수단이기도 하다. 제목의 현저한 변화는 이러한 관행을 거스르면서 기왕의 제목을 고수했을 경우 예상되는 이점까지를 포기하는 일이다. 게다가 그가 제목으로 내세운 어휘들이 실제 작품에

14) 이는 책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제목 변경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서 지엽적인 요소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독자 흡인에 실패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제목이 바뀐 소설들은 외견상 신소설도 아니고 고전소설도 아닌 작품이 되어 독자들에게 오히려 실망감을 안겨다 주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둘째, 박건회는 많은 작품들을 장회를 나누고 책 앞부분에 목차를 삽입하였다. 여러 편을 한데 모은 <육효자전> 등 여섯 작품을 제외하면, 44편 가운데 30편이 장회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장회체의 사용은 전대의 소설 형식을 본뜬 것이긴 하다. 그러나 내용을 요약한 한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제시하는 등 이전에 비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셋째, 부록의 첨가도 특징적인 현상이다. <숙영낭자전>(1915)에서는 작품 말미에 “후면에 각각 단편소설 기장식 첨부하였사오니 소설계의 가위수지에 굴할 특종이외다”라고 하여 자신의 시도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진 단편은 “복선화음”(〈당태종전〉, 〈노처녀고독각씨〉), “태상감응편”(〈증수백학선〉), “감응편”(〈숙영낭자전〉), “조선야사”(〈소약란직금도〉) 등의 제목으로 3편 이상을 첨부한 경우도 있고, “적벽가”와 “오호대장기” 2편을 첨부한 <화용도실기>도 있는데, 야담에서 유래한 이야기를 1편씩 덧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건회의 이러한 시도들은 그러나 출판계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였다.¹⁵⁾ 구활자본 고전소설의 대부분은 여백조차 없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¹⁶⁾ 그러나, 결과의 성패를 떠나 그의 노력 가운데 인정해야 할 부분이 없지는 않다. 제목을 통해 작품 내용을 최대한 노출시키려 하고, 장회체 형식 마련이나 부록 첨가 등의 흔치 않는 편집 방식을 취한 것은 독자를 의식하고 이루어진 시도라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독자에 대한 관심은 부분적으로는 출판인으로서의 이윤추구 그 연장선

15) 부록의 첨가는 현수봉, <생육신전>(신구서림, 1929)과 이규용, <영조대왕야순기>(1929)에 서도 보이나 이들은 고전소설이 아니며 발행 시기 또한 차이가 있다.

16) 출판사간 경쟁이 그러한 현상의 주 원인이다. “고대소설류가 가장 많이 나가는데, (...) 그 책가(冊價)로 보아 출판비용을 제하면 서적 중에서는 이 고대소설류가 그 중 이(利)가 박하다고 한다”(「서적시장 조사기」, 《삼천리》 제7권 제9호, 1935).

상에 있겠지만, 박건회의 경우 그것이 지면의 할애 등 상업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편집상의 특징들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단형 서사에 대한 관심

박건회가 출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12년에 그가 편집한 책들은 <가정소설 천리경>, <박천남전>, <청구기담>이며, <격몽요결>과 <용학집주>도 같은 해 발행되었다. 이러한 이야기책과 한학 관련 서적의 발행은 당시 출판계의 동향으로 미루어 볼 때 특이점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동일 인물에 의하여 성격이 판이한 듯 보이는 이들 서적이 동시에 발행된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 특히, 친일적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일본 영웅 설화를 소설화 하는 등¹⁷⁾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책을 출판한 사실은 이야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하겠다.

1913년에도 그는 역사영웅 가운데 상대적으로 설화적 요소가 풍부한 강감찬을 주인공으로 한 <고려강시중전>을 출판한다. 이 작품은 강감찬이 이적을 행하는 설화를 수용하고, 거란과의 싸움 과정 등이 자세하게 서술된다. 또, 단편 모음집인 <삼설기>를 전대의 소설 가운데는 가장 먼저 발행하는데, 이 역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¹⁸⁾

그런데, 그가 선발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의 궁극적인 관심이 이윤추구에만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업적인 의도에서라면 당연히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선택되었을 터이지만 그는 오히려 교훈적인 이야기의 소개에 더 진력했던 것이다. 초기에 발행된 <천리경>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천리경>은 ‘가정소설’이라는 수식어를 제목에 덧붙이고 있지만 소설로 보기는 어려우며, 12편의 교훈적인 이야기를 모아 단편집이다.¹⁹⁾ 여기에 실린 작품 가운데 절반 가량의 분량을 차지하는 <김장하와 최완길>을 예로

17) 장효현, 전계 논문.

18) <고려강시중전>과 <삼설기>는 각각 1913년 1월과 2월에 발행되었다.

19) 박건회는 부록으로 덧붙인 짧은 이야기도 ‘단편소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들면, 그 내용이 산골에서 본데없이 자란 최완길이 시골 노인 김장하를 방문하여 무례한 언행을 보이자 노인이 부모와 어른 공경을 시초부터 이해하지 못하는 최완길을 깨우친다는 것이다. 이같은 단순한 이야기에 작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 놓았다.

최완길은 천진나라 능히 도라슴이 여초히 신속흐엿스니 세상에 제일 돌리기 어려운 즈는 제가 스사로 만반 사물을 다 안다 즈랑흐는 슴이라 제 허물을 알고도 감초고즈흐야 줄연이 곳치지 못흐느니 보시는 이는 저기 감동이 될진저²⁰⁾

위의 인용문을 보면, 저자는 작중 인물의 행동을 요약하고 그것의 의미를 부연한 후 독자들의 반응까지도 예단하고 있다. 아무리 무도한 사람이라도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고치는 일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강조한 것이다. 모든 이야기에서 이처럼 편집 의도를 확연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권학을 강조하거나 바른 도리를 권계하는 것이 이 단편집의 주된 내용이다. 결국 <천리경>은 같은 시기에 발행된 유교 관련 교과서류의 취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짧은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전달하고 강조하려는 의도는 부록으로 첨가된 이야기 외에 <금고기관>(191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단편을 모은 이 책은 필사본으로도 널리 읽히던 것인데, 활자본에서는 <권옹지혜정가법>이라는 이야기가 맨 앞에 덧붙여 있다. 지혜로 집안을 다스린다는 내용의 이 단편은 『기문총화』, 『계서야담』 등 우리의 문헌선풍집에 실려 있던 작품인데, <금고기관> 원본에 없던 내용이 교훈적 성격을 표방하려는 의도에서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건회는 독자의 존재를 의식하고 단형 서사를 통하여 효용성이 강한 메시지의 전달에 주력하였거나 단형 서사의 교훈적 가치에 몰입한 나머지 이를 출판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20) <천리경>, 조선서관, 1912, p.27.

3) 중국 연원 소설의 집중 발행

박건회가 편집한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중국에 연원을 둔 소설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이다. 1910년대 고전소설의 활자본 출판이 성행하게 된 단초는 알려진 대로 1912년 이해조가 <옥중화> 등 판소리계 소설을 <매일신보>에 연재하고 그 단행본을 구활자본으로 출간한 일이다. 새로운 책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량 인쇄는 출판사에 이전보다 많은 이윤을 보장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전소설 출판이 유행하는데, 박건회는 이듬해인 1913년 모두 8종의 소설을 발행한다. <강시중전>, <삼설기>, <강태공전>, <서상기>, <삼국지>, <서유기>, <수호지>, <장자방전>이 그것이다.

이들 중에서 <강시중전>과 <삼설기>가 연초에 발행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중국소설에 뿌리를 둔 작품이어서 소설 유행을 불러왔던 이해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두 작품이 이야기 문학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 논외로 한다면 이 시기 박건회의 소설은 중국 소설 일색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출판 작품의 편중 현상은 1차적으로는 방각본의 경향에서 유래한 것이며 이전 시대부터 지속된 독자들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 <표2>에서 보듯이 박건회가 발행한 소설들 가운데 상당수가 방각본 소설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선호하는 작품을 선택하다 보니 어느 정도 호응도가 확인된 방각본을 선택했다는 논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방각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면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51작품이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판본 소설²¹⁾ 가운데 박건회의 출판 목록과 겹치는 것은 21작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방각본 출판 목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가 모든 방각본을 출판하지 못한 것은 시간적 혹은 경제적 여건 탓일 수도 있고, <신미록>이나 <임진록>처럼 당시의 정치 환경으로 인하여 출판이 어려운 작품들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외부적인 요인 외에 박건회 개인의 성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1)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판본연구』, 태학사, 2000.

그는 당대의 누구보다 소설책의 제작과 편집에 적극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박건회는 독자들의 호응도가 가장 높았던 <춘향전>도 1915년 12월에 가서야 다른 출판사 이름으로 선보인다. 또, <구운몽>, <사씨남정기>, <장화홍련전> 그리고 <홍부전>, <심청전> 등 방각본 가운데 지명도가 높았으리라 예상되는 작품들도 선택하지 않았다. 육당 최남선이 육전소설 문고를 기획하면서 선보인 작품들과 비교하면 그 특이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심청전, 홍부전, 홍길동전, 남훈태평가, 삼설기(2책), 제마무전, 사씨남정기(2책), 전우치전²²⁾

육전소설 문고에 들어있는 위의 작품들 가운데 박건회의 출판목록과 겹치는 작품은 현재로선 <삼설기>가 유일하다. 이처럼 우리의 소설 가운데 유명한 작품이나 판소리계 소설들은 박건회의 출판 목록에서 상당수가 빠져 있다. 반면 중국 연원 소설의 출판은 1913년 이후로도 지속된다. <화용도>, <소군원>, <설인귀전>, <소약란적금도>, 그리고 <대담강유실기> 등이 이후 출판된 작품들이다. <하진양문록>이라는 대장편 소설의 출판을 실행에 옮기고, <금향정기> 같은 작품은 기존의 방각본 아닌 필사본 14권 본을 선택한²³⁾ 데서 확인되는 열의를 감안하면 판소리계 소설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 선정은 고전소설에 대한 다음의 비판적 언술들과 일면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춘향전을 보면 정치를 알겠소? 심청전을 보고 법률을 알겠소? 홍길동전을 보아 도덕을 알겠소? 말할진대 춘향전은 음탕 교과서요, 심청전은 처량 교과서요, 홍길동전은 허황 교과서라 할 것이니, 국민을 음탕 교과서로 가르치면 어찌 풍속이 아름다우며 처량 교과로 가르치면 어찌 장진지망이 있으며 허황 교과로 가르치면 어찌 정대한 기상이 있으리까?²⁴⁾

22) 『청춘』 1914년 10월.

23) 유춘동, 「<금향정기>의 연원과 이본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2.

24) 이해조, <자유종>, 광학서포, 1910.

시골 주문에는 소설의 춘향전 심청전이 제일 많고 사숙 교과용으로 사서삼경이 약간 있다 한다. 책사들이 저렇게 쓸쓸하고 글소리라고 난다는 것이 춘향코 내코 한 데 대코소리, 묵은 조개가 햇조개를 낳는다는 소리, 공자왈 맹자왈 그 따위 죽어가는 소리가 많다니 말이 되느냐 말이다.²⁵⁾

위의 인용문은 시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히 판소리계 소설로 대표되는 고전소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 준다. 고전소설을 출판하던 박건회는 위 인용문의 논자 입장에서는 비판 대상이겠으나, 그 역시 작품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작품 선정 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⁶⁾ 이는, 이해조가 작품 속 등장인물의 발언을 통해 <춘향전> 등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지만 <옥중화>라는 개작본을 신문에 연재한 사실에서 보듯이 전환기를 살아가던 지식인의 다양한 모습과 연관지을 수 있다.

4. 문화사적 의미와 한계

1) 인쇄 매체와 구술 문화의 접목

박건회가 교훈적인 이야기들에 높은 관심을 보여 여러 방식의 편집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야기의 가치가 그 효용성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듯이 이야기에 대한 그의 행적 또한 관심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인쇄 매체에 구술 문화를 접목하려는 시도와 독자의 재발견이 그것이다.

이미지의 선연한 효과가 강조되고 문자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에도 구술 문화적 특징들은 여전히 유효하다.²⁷⁾ 이야기는 구술

25) 석계, 「대경성 백주 암행기」, 『별건곤』 2호, 1926.

26) 소설 강독사 정규현 옹은 판소리와 소설에도 격이 있어 과거에는 소설에 비해 판소리가 홀대받았다고 술회한다. 예술 장르의 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는데, 박건회 역시 소설의 격을 의식하여 작품 선발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소산이다. 그런데 박건회가 활동한 1910년대는 구술 문화의 영향력이 상존하면서 동시에 인쇄 문화가 급격히 팽창하던 시기이다. 그의 활동은 구술문화와 부분적으로 연관된 고전소설이 외견상 인쇄 문화의 주요한 내용물로 부상하던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구활자본 고전소설은 전 시대에 창작되었던 소설의 인쇄 방식만을 달리한 단순 복제가 아닌데, 특히 박건회의 작품 속 개입은 이같은 구술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는 몇몇 소설에서 본문과 특별히 구분하지 않은 채 서문 혹은 발문 형태로 독자들에게 말하듯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화설 지라 삼국시절에 턴슈현 기싸에 훈 담 크고 특이훈 일디명장이 있스니 성은 강이요 명은 유요(…) 난군 중에 죽었스니 엇지 가련호고 원통치 아니하리오 저지 삼국지를 보다가 강유의 구벌중원훈 사실을 보면 그림에 찍이 되었스니 한번 소리 지르고 칩상을 치지 아니치 못하리로다²⁸⁾

화설 예로부터 이제에 이르기까지 기이한 남자와 기이한 여자가 비록 모두 천지의 영특하고 신령한 기운을 타고나는 것이로되 기이한 일은 각각 같지 아니미 잇나니(…) ²⁹⁾

서술자 곧 저자의 개입은 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위에 든 예문처럼 박건회는 다소 수다스럽다고까지 할 정도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 장회가 나뉘는 부분에서도 “차문 하회하라” 혹은 “차청 하회하라”는 등의 말을 어김없이 삽입한다. 또, <금방울전>에서는 부모의 죽음으로 인한 자식의 슬픔을 3차례 반복 서술하여 1회에 그친 방각본과 다르다.³⁰⁾

27) 월터 옹은 구술문화에 입각한 사고와 표현은 “㉠첨가적 ㉡집합적 ㉢다변적 ㉣보수적 전통적 ㉤생활세계에 밀착 ㉥논쟁적 어조 ㉦감정이입적 ㉧항상성 ㉨상황의존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월터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0).

28) <대담강유설기>, 보급서관대창서원, 1922, p.1.

29) <왕소군세소군전>, 광동서국, 1918.

30) 박건회 편집본 <금방울전>에 대하여 최운식 교수는 변화된 내용들이 박건회의 문학적 소

이러한 개입은 작품 안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다. 작품 말미에 본문과 구분없이 덧붙여진 광고들 또한 대표적인 개입 사례이다.

여보시오 소설이 아마도 여러 가지 (...) 정말 지미가 쏘다지는구료 또 이 아래 조선야사에 진귀훈 단편소설이 있소 ○○즈계군이여 조선서관서 발행헌 소설을 특별이 주의하시고(<팔장사전>, 신구서림, 1917)

삼국지는 쫓낫소이다마는 계속하야 보실 소설은 이 아래 소지하앗사오니 급급히 주문하시오 (...) 신구소설 사빅여 종과 니외국서적 삼빅여 종이 더구 비하앗사외다(<대담강유실기>, 보급서관 대창서원, 1922)

개입은 이처럼 소설 내용을 너무 취신하지 말라거나 작품이 지닌 교훈을 진파하는 등의 내용 외에도 후편을 소개하는 광고이거나³¹⁾ 인쇄 중인 소설 목록 등인데 “급히 광고할 일”이라 첨언하기도 하고(<노처녀고독각씨>), “이 아래 유명한 할인경품권이 있소”라며 구매를 권유하는(<쌍두장군전>)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여기에 상업적 의도가 담겨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개입의 동기는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저자의 말이나 도서 광고의 삽입은 제목의 변화나 목차의 제시와 함께 인쇄 매체에 구술문화적 성격을 접목하려는 박건희만의 독특한 이야기 접근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을 이야기꾼으로 상정하고 책 속에서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걸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입은 다른 이들에게서 찾기 어려움은 물론 자신의 출판물도 1918년 이후에는 급격히 위축된다. 여기에는 당대 고전소설의 독서 환경이 일정 부분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양과 창의력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최운식, 『한국고소설 연구』, 보고사, 1999, pp.288~289).

31) 조선서관본 <산수삼국지>는 전집3책 후집5책, 속집1책 등 총 9책으로 되어 있는데, 후집5권 말미에 조선서관 편집자 영감에게 건네는 물음과 그에 대한 답을 함께 써놓아 속집이 있음을 광고하고 있다.

집집마다 심지어 행랑방에도 춘향전 무슨 전하는 소설 한 책씩은 다 있지 아니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골목에 발만 내어 놓으면 집집으로 나오는 ‘각설 이때’의 소리 참말 듣기 거북하더이다³²⁾

동리마다 농청이 있어서 겨울이면 ... 옛이야기와 소설 읽는 소리를 들으려고 어린 손자를 옆에 안고 오는 늙은 할머니도 있다. 그 중에 목청이나 좋고 국문을 능통하는 이가 한두 분이 있으면 의례히 심청전이나 장화홍련전 같은 고대소설을 밤이 깊도록 돌려 본다. 인정 많은 부인들은 옆방에서 자미있게 열심으로 듣다가 슬픈 구절이 나오면 가끔가끔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고서는 또 부끄러워서 얼굴이 앵두 빛이 되어 돌아앉는다.³³⁾

추수가 끝난 겨울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앉아 목소리 좋은 사람이 얘기책을 들고 낭독하는 것을 즐겼던 시절이었으니까요.³⁴⁾

내가 서당에 다닐 때였으니까, 나는 등잔불을 돌아가며, 동네 할머니들이 쭉 둘러앉은 속에서 <춘향전>을 구성진 소리로 읽어주는 서당 집장의 필릭거리는 입을 쳐다보며 눈물을 짹짹 흘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³⁵⁾

이상의 인용문들은 20세기 초반 고전소설의 독서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알려 준다. 인쇄 매체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묵독이 아닌 다중이 참여하는 낭독 형태의 독서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독서 현장에서는 1차적인 구술과 문자화된 소설에 의존하는 2차적인 구술이 공존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는 박건회의 개입 문구는 3차적인 구술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중복은 실제 독자들의 작품 속 몰입을 방해하고 낭독 현장에서의 독서 흐름을 차단했으리라 생각한다.³⁶⁾ 인쇄 매체에 대한

32) 박달성, 「경성형제에게 탄원합니다」, 『개벽』 21, 1922.

33) 재경 한국동, 「지방색-메밀 전병:강원도 양구군」, 『별건곤』 2, 1926.

34) 이경훈, 「증언으로 읽는 해방 전후 출판계1」, 『속 책은 만인의 것』, 보성사, 1993.

35) 최정희, 「고전명작 감상 춘향전」, 『삼천리』, 12권9호, 1940.

36) 판소리에서 보이는 서술자의 개입과 비교하면 박건회 작품에서 보이는 서술자의 개입은 동의를 구하는 형식이 아니라 일방적인 전달 형식으로 되어 있어 서술자가 독자 위에 군림한

지나친 의존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³⁷⁾

2) 독자의 재발견과 방향 전환 : 영웅탐색에서 기이한 운명으로

자신이 발행한 서적에 구술문화적 요소를 삽입한 박건회의 시도가 반향을 가져오긴 어려웠다고 하여도 독자를 의식한 그의 입장에 대해서는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음 인용문에서도 독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희라 세도일변하고 풍조신치훈 후로 신소설에 번창이 날로 흥왕이라 근린 신소설은 디소남녀와 상하로소로 호야곰 일람히석키 용이하니 전국이목의 형 복이 될지로다…(<신랑의보쌈>, 광익서관, 1917)

위의 인용문을 보면, 박건회는 자신이 한문에 익숙한 세대이면서도 신소설의 장점으로 누구나 한번 보아 이해하기 쉽다는 점을 들고 있다. 소설 편집자로서 그의 주의를 어찌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독자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은 <처세가>의 발행과정에서도 확인된다.³⁸⁾

그렇다면 이처럼 박건회가 의식했던 독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서양의 인쇄술의 수입으로 인하여 도서가 대중화되고 문자 해독 능력을 지닌 새로운 독서층이 등장한 것은 의미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박건회의 독자에 대한 생각은 바로 1910년대 소설 독자층의 확대와 연관되며 이들 독자를 향한 그의 행동은 친구 독자 모두를 포섭하려 했다는 점에서 ‘독자의 재발견’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향하여 박건회가

다는 인상을 준다.

37) 매체에 대한 신뢰는 전언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그 관습에 익숙하다 보면 매체가 모든 것을 다 전해준다고 착각하게 된다. 인쇄 매체의 고정성은 그 정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

38) “물외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수많은 한시를 인용하여 여타의 작품들과 문체적으로 상이한 특징을 보여주는 낙지편이 떨어져 나간 것은 활자본을 간행할 때 이 작품이 대중의 취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고정희, 「초당문답 해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http://kyujanggak.snu.ac.kr/>).

전달하려 한 내용물은 어떤 것이었는가? 초기에 출판한 소설들을 통해 그 윤곽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1913년에 출판된 도서들이 중국 편향적이라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들을 다시 살펴보면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서상기> 등 중국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과 함께 <장자방실기>, <강태공실기>가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 창업 공신인 장자방, 그리고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의 기틀을 잡은 강태공, 난세에 지혜를 발휘하여 새로운 국가 건설에 기여한 이들 두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하필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기 박건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한다. 중국의 역사적 인물을 매개로 한 영웅상의 제시가 그것이다. 이는 작품 제목을 공히 ○○○실기로 한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는데 <화용도실기>나 <울지경덕실기> 같은 작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³⁹⁾

하지만 중국 문화의 소산이라 할 수 있는 이들 작품은 당시 독자들의 취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박건회가 활동을 시작한 때는 우선 중국문화의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새로운 문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던 시기였으며 독자층에도 뚜렷한 분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⁴⁰⁾ 고전소설은 주로 농촌에서 많이 읽혔으며⁴¹⁾ 특정의 몇몇 작품이 집중적으로 선택되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역사적 인물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훈을 앞세운 접근 방식은 독자의 실상과 다소 거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9) 허구적인 내용도 실제 일처럼 제시하는 것은 당대에 흔히 목격되는데, 박건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저지 왈 (….) 고려시절에 소위 보쌌이라 혹은 약품이 성형홍야 인명에 피희가 망유기극이러니 김요문의 일장상소로 영구이 업서졌시니 역시 후 세까지라도 공효를 끼쳤더라”(〈신랑의 보쌌〉, 광익서관, 1917)

40) 근대적 대중 독자나 엘리트적 독자층과는 다른 전통적 독자층은 대상 독서물에 있어 나름대로 차별성을 유지한 채로 분포되어 있었다(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p.53 참조).

41) “더욱이 연말에 이르면 농한기인 까닭으로 온돌 아랫목에서 ‘각설 이때’ 찾는 조선 전래의 구소설 출판이 제일 많다는데..”(「조선출판계의 현황」, 『동아일보』, 1928.12.21); “시골주 문에는 소설의 춘향전 심청전이 제일 많고..”(석계, 「대경성백주암행기」, 『별건곤』 2, 1926.12.01). 이들 진술은 도시와 농촌의 독서 행태가 달랐음을 알려준다기 보다는 변화와 지속 가운데 후자가 선호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월리 소설가 유지가 선선오악하는 도리로 우부우녀를 권장하는 거시 제일 목적이 될지라. 그러나 이 소설도 말습호오면 고딤소설이라 칭호를 비 아니라 신신히 신소설에도 빅층이 더호을 듯호외다⁴²⁾

저지 왈 사람이 다문박식이 업시면 지혜가 밝지 못호고 도락이 널지 못호야 표면과 풍치는 아모리 화려호지라도 일지 동물에 불과호지라 … 문식이 잇는 즈는 가히 펄력이 잇스려니와 그럿치 못호면 서즈셔 아즈아의 탄식이 엇지 업스리오⁴³⁾

독서 환경과 독자 층위에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전소설에 내재한 기본 성격은 좀처럼 변하기 어려운 것이어서⁴⁴⁾ 독자를 의식한 박건회의 노선 수정은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의 작품 선정과 관련된 변화의 시기는 유교 서적에서 역술 서적으로의 전환 시기와 맞물려 있다. 관상술 관련 서적을 발행한 이 때를 전후하여 편집 소설의 성향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형산백옥>을 보기로 들어 본다.

이 작품은 주인공 장계선이 고난을 거쳐 초옥, 요화공주, 춘랑의 세 여인과 차례로 결연하는 내용인데, 서사에서 초현실적 요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진인의 도움, 관상술, 신령의 현몽, 태상노군과 여래의 대결, 이계로의 진입 등 동원 가능한 요소들이 모두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17년 발행된 <신랑의 보쌈> 역시 추리소설적 요소를 도입한 사건의 재구성이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해결 방식은 몽조 혹은 점술 등에 의존하여 현실성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작품이다. <진주적삼>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인공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받은 옷 ‘진주 적삼’이 주인공을 위기에서 구하는 등 비현실적 요소가 짙다.

이상의 작품을 보건대, 영웅적 인물의 탐색에 관심을 가졌던 박건회는

42) <금향정기>, 동미서시, 1916, p.1.

43) <신랑의 보쌈>, 광익서관, 1917.

44) “1910년대 이후 출판은 근대적 기술에 따른 ‘전통적 서적(방각소설)’의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내용적인 면[서적의 성격]에 있어서는 전통사회와의 연속성이 강하다면 그 형식[출판 방식]에 있어서는 전통과의 단절적인 면모가 강하다.”(류준경, 「독서층의 새로운 지평, 방각본과 신활자본」, 한국한문고전학회, 『한문고전연구』 13, 2006, p.299).

1910년대 중반 이후로는 기이함 혹은 운명 등을 작품의 성향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서적의 제목으로도 ‘비방’ ‘비밀’ 등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강압적인 정치가 이루어지고 출판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 자신만의 대처 방법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 서적의 출판에서 그랬던 것처럼 소설 작품에서도 전래 문화의 자장 안에 머무름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창작 성향을 발휘하지 못했음이 그의 개작과 편집 활동이 지니는 한계로 파악된다.⁴⁵⁾

5. 결론

1910년대 구활자본 고전소설의 유행과 박건회라는 편집자의 등장은 소설 독자층의 부상과 맞물려 있어 그 자체로 주목해야 할 문화적 현상이다. 이 시기 고전소설은 이전 시대의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인쇄술 도입으로 작품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독자층의 확대가 가능해졌으며 이들 독자의 요구에 의한 생산이 다시 이루어지는 일련의 순환 과정이 소설 작품의 향배에 두루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소설 향유의 양적 확대는 상업적 출판이라는 두터운 외피를 입고 있는 탓에 그 영향을 벗어난 논의를 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모든 변화를 상업적인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거나 시장에서의 성패가 곧 작품의 성패를 판가름한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박건회가 개작 혹은 편집한 소설들을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그는 편집 방식의 변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 했으며, 교훈적 이야기나 중국소설 중심의 서적을 출판하는 선택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45) 그는 1914년에 <처세가>를 출판하면서 ‘만고기담’이라고 제목을 꾸몄다. 같은 시기에 이상협은 <아라비안 나이트>를 번역한 ‘만고기담’을 1913년부터 1914년까지 연재한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작품의 성격은 전혀 다른 이 사례를 통하여서도 박건회의 위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전 시대와 다른 새로운 인쇄 매체가 점차 그 세력을 확산하던 시기에 그는 소설책 출판에 구술문화적 요소를 삼입하여 그 접점을 모색하였다. 셋째, 박건회의 이러한 시도는 독자층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지만, 스스로는 전통 문화의 제반 특성들을 고수함으로써 다양한 요소들을 창작에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같은 박건회의 모습을 당시 고전소설에 관여했던 이해조나 최남선과 비교하면 그 면모가 더욱 확연히 나타난다. 이해조는 신소설과 판소리계 소설을 거친 후 한명회와 홍윤성 같은 조선시대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문헌설화를 교합하여 창작했다. 그리고 최남선은 고서 수집과 보급의 일환으로 고전 소설에 관심을 두었다가 자신의 입지를 고전 연구에서 굳건히 하였다.

이들에 비하면 박건회는 소설 편집자인 동시에 출판인이라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닌 문화적 토양을 오히려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어 더 이상의 변화를 추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가 곧 박건회가 출판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문화의 한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환기를 맞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미숙함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선택된 행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 작품의 이본으로서 박건회 개작 혹은 편집본이 가지는 세세한 변화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박건회의 전기적 사실에 대한 조사와 작품 발굴 작업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매일신보》, 《별건곤》, 《삼천리》.

- 이은숙, 『신작구소설연구』, 국학자료원, 2000.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판본연구』, 태학사, 2000.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 출판부, 2002.
조희웅, 『고전소설작품연구총람』, 집문당, 2000.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최운식, 『한국고소설 연구』, 3판 ; 보고사, 1999.
윌터 J.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0.
- 권순궁, 「1910년대 활자본 고소설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1991.
류준경, 「독서층의 새로운 지평, 방각본과 신활자본」, 한국한문고전학회, 『한문
고전연구』 13, 2006, pp.271~302.
신효선, 「형산백옥 연구」, 교원대 대학원, 2006.
유춘동, 「금향정기의 연원과 이본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2.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1997.
최호석, 「지송옥과 신구서림」, 한국고소설학회, 『고소설연구』 19, 2005, pp.255~
282.

The Transitional Aspects in *Park Keon Hoe's* Adaptations in 1910s-1920s

Park Keon Hoe is one of the most active persons in the publishing of classic novels in the 1910s. Accordingly, through him, we can see the meanings and limitations of classic novels in cultural history during his days, which were a transitional period of Korean history.

Park Keon Hoe published a total of around 50 novels. The novels published by him were mostly popular works among readers in the *Chosun* Dynasty. However, he published them in printed books by applying a unique editing method. This was advantageous in that more information could be conveyed to readers.

Many of books published by him were stories and Chinese novels. He did not publish important works including novels related to *Pansori*. This fact suggests that his efforts were concentrated on the delivery of edificatory values and his activities were deeply influenced by Chinese culture.

A meaning of *Park Keon Hoe's* publishing activities is that he tried to find a contact point between print media and the elements of oral culture. Moreover, he took notice of new classes of readers brought by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and the mass distribution of books, and rediscovered the existence of the readers.

Despite his efforts as such, however, readers' response was not as high as expected probably because he adhered to his cultural background.

keywords: *Choseon-seokwan*, Orality, Literacy, rediscovery of readers, environment in reading

접수일자 : 2008. 4. 10
심사기간 : 2008. 4. 10~2008. 5. 20
게재결정 : 2008. 5. 20